

이 빠진 호랑이, 성적은 '쑥쑥'

'잘 나가는 호랑이, 재활군도 초호화'
KIA 타이거즈가 LG 트윈스와의 주중 '신바람'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3위까지 치고 올랐다.

1위 독주중인 SK 와이번스와의 대결에서도 3승2무1패를 기록하며 7개 구단 중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권 팀에서 '잘나가는 집안'으로 거듭난 KIA에게도 맡 못할 속사정은 있다.

서재웅·이범석·한기주·이용규·장성호·채종범 등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재활군에 머물고 있다. 선발에 미무리, 수위타자 그리고 3번 타자 등 '차포'에 '마상'까지 모두 떼어놓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팔꿈치와 어깨 통증으로 빠진 서재웅과 이범석은 선발로 텐션 세트업 시점이 불투명하고, '마무리 휴업' 중인 한기주도 요즘 선발요청 등의 문제로 뒤숭숭하다.

여기엔 복승아빠 골절로 재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용규도 7월께나 복귀가 가능한데다 채종범도 이제 겨우 재활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나마 수비쪽 팔꿈치 타박상을 입은 장성호가 가장 상태가 양호하다. 이외에도 지난해 1군 벤치를 지키던 내야수 김종국과 외야수 최경환도 2군에 머물고 있는 등 걸로는 '이 빠진 호랑이'다.

지난해에도 주전들의 출부상에 시름했던 KIA지만 성적은 판판이다.

그 중심에는 '빅초이' 최희섭이 있다. 겨우내 구슬땀을 흘렸던 최희섭은 거침없는 스윙으로 홈런왕을 향해 달리고 있다.

'거포' 최희섭이 4번에 지키고 선 타선에 김상현까지 가세하면서 공격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3할로 시즌을 마감했던 김원섭도 '소리없는 맹활약'으로 이용규가 빠진 1번 자리에서 만점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 돌아온 흥세완도 3번 타자



지난 19일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 야구장 관중석에서 재활중인 서재웅과 이용규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서재웅·한기주·이용규·이범석 등 주전 출부상 불구

김상현·홍세완·양현종·곽정철 등 맹활약 3위 도약

로 '클립업 트리오'에 자리를 잡았다.

마운드에는 영건 30방의 무서운 성장세가 힘을 더한다.

2.01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행진중인 양현종이 좌완 에이스로 급부상했고, '돌직구' 곽정철도 선발로 텐션 세트업의 한 자리를 꿰차며 마운드를 채우고 있다. 임준혁도 중간과 선발을 오가며 웃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두 용병 투수들의 치열한 내부 경쟁 속에 '살신성'인 유헉민의 철벽 방어도 위기의 마운드를 지탱하고 있다. 백전노장 이대진도 히어로즈전 출격을 준비하는 등 마운드에 신·구 조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거포' 최희섭이 4번에 지키고 선 타선에 김상현까지 가세하면서 공격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최실한 주전' 없는 경쟁구도 속에 주전과 백업 간의 실력격차가 줄어든 점도 팀 전력 상승 요인이다. 끈끈해진 벤치 분위기도 KIA 뒷심을 자극하고 있다.

같은 행보 속에 다른 성적을 내고 있는 KIA의 변화가 2009 시즌 프로야구 판도를 바꾸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24일까지 네임데이

3위를 달리고 있는 KIA가 오는 24일까지 네임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19일 호남대학교 남문 앞 행사장을 갖은 KIA는 21일에는 국민은행의 날로 정해 해당 기관 직원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23일 히어로즈전에는 3M 일직원 1천여명이 참석해 응원전을 펼치는 등 주말 흥 3연전에서도 네임데이 행사가 이어진다.

수가 흙으로 공을 던지는 사이 주신수는 차치있게 2루까지 갔다.

이어 조니 페랄타의 중견수 앞 안타 때 주신수는 흙에 들어와 득점도 기록했다.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볼넷을 끌라 나간 주신수는 8회 바뀐 투수 시드니 폰슨의 시속 138km짜리 체인지업을 살짝 밀어쳐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렸다.

시즌 타율은 0.285에서 0.293(140타수41안타)으로 높아지며 3할대에 접근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FA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석진욱(삼성화재) 선수 등 프로배구 선수들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FA(자유계약선수)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구 발전을 염원하는 선수들의 모임(기칭)은 ▲FA 제도 도입 ▲현행 드래프트제 개선 ▲다년 연봉계약제 도입 ▲선수구 구단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보류제도 개선 등 4개 항을 한국배구연맹(KOVO)과 각 구단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FA 도입은 배구 발전 위해 필수"

석진욱 등 男 프로배구 선수들 도입 촉구 기자회견

노조 설립 계획은 없어…배구聯 "세부 사항 논의중"

프로배구 선수들이 FA(자유계약선수)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출했다.

'배구 발전을 염원하는 선수들의 모임'(기칭, 임시대표 석진욱)은 21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FA 제도 도입 ▲현행 드래프트제 개선 ▲다년 연봉계약제 도입 ▲선수구 구단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보류제도 개선 등 4개 항을 한국배구연맹(KOVO)과 각 구단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모임 대표를 맡은 석진욱(삼성화재)을 비롯해 이경수(LIG손보), 후인정(현대캐피탈), 신영수(대한항공), 최석기(KEPCO45), 이강주(우리캐피탈) 등 6개 팀 대표와 최태웅(삼성화재), 이선구(현대캐피탈), 김학민(대한항공) 등 각팀 주축 선

수 17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는 전체 100여명의 KOVO 등록 선수 중 70% 가량인 71명이 동참하고 있다.

석진욱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한국 배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선수들의 소중한 꿈을 담아 이 자리에 섰다. 그동안 선수들은 선수협회나 노조도 없이 불합리한 계약제도, 드래프트 제도를 받아들여 왔지만 보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프로스포츠로서 배구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로스포츠 중 유일하게 남자배구만 FA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않아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석진욱은 '이 모임이 노조나 선수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

해 "부당함을 얘기해보자며 만난 것일뿐"이라고 답했다.

이경수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구단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모임 자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노조나 선수협의회를 설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그러나 선수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FA 제도 부재의 부당성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VO는 선수들의 요구에 대해 "연맹은 3년 전부터 FA 제도 도입을 논의해왔다. FA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단 FA 자격 요청과 보상 기준 등에서 구단들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배구는 여자부에 FA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남자부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여자부는 6시즌을 뛰면 FA 자격을 얻는다. 남자부는 5시즌을 뛰면 FA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주제

日 언론 "이승엽 8호포…허리부상 걱정 날렸다"

"시즌 8호 홈런을 쏘아 올리며 허리부상 걱정을 없앴다."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21일 인터넷판에서 지난 주말 허리 통증으로 두 경기 결장했던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0경기 만인 20일 니혼햄 파이터스와 경기에서 홈런포를 재개동하며 허리 부상에 대한 불안을 없앴다고 보도했다.

이승엽은 15일 히로시마 도요카프전에서 허리 근육이 땅기는 느낌을 받아 6회 수비 때 교체됐고 16,17일 경기에는 대타로도 기용되지 않고 연이틀 쉬었다.

이승엽은 20일 니혼햄과 경기에서 5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 0-0이던 2회초 1사 후 첫 타석에서 니혼햄 오른손 선발 투수 브라이언

언 스위니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끌어당겨 오른쪽 팔을 넘어가는 선제 솔로포를 터뜨렸다.

이승엽은 "하체가 안정돼 있어 홈런을 칠 수 있었다"며 허리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을 시즌 처음으로 지명타자로 나오와서 (타격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이승엽이 19일 니혼햄과 경기에서 4회말 선두타자의 정면 땅볼 타구를 놓치는 실책을 범하면서 4점을 줘 경기에 졌다며 설욕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승엽은 "첫번째 타석부터 홈런이라는 최고의 결과로 기대에 달할 수 있어 기뻤지만 팀이 5-6으로 점수를 내면서 분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일(금)

▲08/09 NBA 서부컨퍼런스 결승2차전 <LA 레이커스 : 레버>(10 : 00·MBC ESPN)

▲2009 한국여자 프로골프 두산매치플레이 월드컵 2일차 32강(12 : 50·Xports)

▲제64회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16강전(종양고 : 광주제일고)(13 : 00·MBC ESPN) <유신고 : 배재고>(15 : 30·MBC ESPN)

▲2009 SK텔레콤 오픈 2R(14 : 10·SBS 골프)

▲2009 프로야구<롯데 : 삼성>(18 : 00·KBS N스포츠) <한화 : LG>(18 : 15·Xports) <하이로즈 : KIA>(18 : 20·MBC ESPN) <두산 : SK>(21 : 00·SBS스포츠)

추신수 3타수 2안타…12번째 멀티히트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즌 12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때리며 1타점을 몰었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경기에서 우익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3타수 2

안타에 볼넷 두 개를 고르면서 1타점, 1득점을 올렸다.

첫 타석에서 유격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0-3으로 뒤진 4회 1사 2루에서 상대 팀 선발 투수 길 메시의 시속 122km짜리 초구 커브를 받아쳐 중견수 앞 적시타를 때렸다.

이어 5회 1사 2루에서 투수 시드니 폰슨의 시속 130km짜리 커브를 받아쳐 2루타를 때렸다.

3타수 2안타에 1타점을 몰았다.

수가 흙으로 공을 던지는 사이 추신수는 차치있게 2루까지 갔다.

이어 조니 페랄타의 중견수 앞 안타 때 추신수는 흙에 들어와 득점도 기록했다.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볼넷을 끌라 나간 추신수는 8회 바뀐 투수 시드니 폰슨의 시속 138km짜리 체인지업을 살짝 밀어쳐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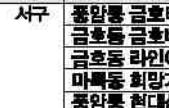
시즌 타율은 0.285에서 0.293(140타수41안타)으로 높아지며 3할대에 접근했다.

/연합뉴스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배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화방

아파트(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법률경매(주)

062) 225-1688
H. 010-3565-2888

* 위치 : 자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주택(내집마련/전가입마련)

지역 소재지 면적 총 출수 갑정가 최저가 비고

서구 두일동(서일동광부단) 84/63 8400만 5800만 2층주택

서구 누은동(복성빌리지) 67/65 291/1200만 1억1900만 2층주택

서구 홍성동(유성파크빌리지) 38/46 8800만 4000만 2층주택

서구 두일동(우동1차단) 165/101 354/1500만 1억8300만 2층주택

서구 율동동(유성파크빌리지) 39/37 8000만 4500만 2층주택

서구 우신동(우동2동서한부단) 48/42 1억3000만 4800만 2층주택